논어 7편 술이 13장 · 원문·풀이

子在齊聞韶，三月不知肉味，曰：「不圖爲樂之至於斯也！」

독음 · 자재제문소 삼월부지육미 왈 부도위악지지어사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제나라에서 소 음악을 듣고 오래도록 고기 맛을 잊을 만큼 깊이 감동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在 있을 재 재 / 齊 가지런할 제 제 / 聞 들을 문 문

韶 아름다울 소 소 / 三 석 삼 삼 / 月 달 월 월 / 不 아닐 불

知 알 지 / 肉 고기 육 육 / 味 맛 미 미 / 曰 가로 왈

圖 그림 도 도 / 爲 할 위 / 樂 즐길 락 / 之 갈 지

至 이를 지 지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斯 이 사 사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